◇여의도 시범아파트내 10가족은 매월 넷째주 금요일 집을 돌아가며 가정법회를 연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10가족 '신행 한마음'

"기도 법회 봉사 함께"

바로 이웃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요즘 세태 속에서 한 아파트에 사는 10가족 42명이 신행과 봉사활동을 함께 하고 있어 흐뭇한 화제가 되고 있다. 10가족 42명이 마치 한 가족처럼 오순도순 정답게 가정법회를 봉행하고 복지단체와 독거노인을 돕는 등 불우이웃돕기에 적극 나서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것.

여의도 63빌딩 건너편 시범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들은 스스로를 '시범아파트 가족불자회(이하 가족불자회)'라 부르고 있다. 91년부터 김영애(41), 서금하(55), 정명오(57), 서두자(56) 보살 등 10명의 주부불자들이 매일 아침 삼삼오오 짝지어 조계사 새벽기도를 다니며 돈독한 친분을 쌓았던게 이 모임의 단초가 됐다. 이른 새벽 집을 나서는 아내들을 조계사까지 태워주었던 남편들도 처음에는 아내를 절 앞에 내려주고 예불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게 고작이었지만, 차츰 새벽기도에 동참하면서 불자가 됐고 아이들까지 가세하게 됐다.

가족불자회는 매월 넷째 금요일, 집을 돌아가며 가정법회를 열고 〈금강경〉을 한목소리로 독송한다. 서두자 보살은 "혼자서 금강경을 읽으려면 잘 안읽어지는데 이렇게 같이 독송하다보면 독송삼매에 빠져 독송이 재밌습니다."고 말한다. 이들은 일요일마다 인천에 있는 장애인복지센터 '즐거운 집'과 원주 소쩍새마을, 경기도 일산 홀트아동복지관 등을 번갈아 방문한다. 엄마들은 장애인들을 씻기고 빨래를 해주고, 아빠들은 여기저기 더러운 곳을 치우고 손볼 곳이 없나 살핀다. 아이들은 사람이 그리운 장애인들과 놀이를 하거나 식사도우미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또 방문할 때마다 쌀과 과일등을 푸짐하게 가져가는데, 쌀은 아파트 상가에서 '대우화장품'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애 보살이 상가 상인들에게 보시받은 것. 내색하지 않았는데도 가족불자회의 보살행이 인근에 알려져 아파트상가 상인들의 도움을 받게된 것이다.

신행으로 똘똘 뭉쳐진 불자 가족회의 유대와 단결은 널리 소문나 이들의 경조사는 회원들만의 참석으로도 항상 풍성해 핵가족시대를 사는 이웃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서금하 보살은 "가정부터 불국토로 만드는 일이 이 사회가 불국토로 가는 첫걸음이 아니겠느냐"며 부처님께 부끄럽지 않은 불자가족이 되는 것이 회원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라고 소개한다.

가족불자회는 2년째 시범아파트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하고 내년부터는 지역내 무의탁 노인들에게 밑반찬 및 빨래 봉사활동을 하는 등 자원봉사 반경을 넓힐 계획이다. 시범아파트 가족불자회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부처님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이타행을 공동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힌다.

오종욱 기자

"전신회-중신회 통합하자"

전국신도회 대의원회의서 조건등 제시

'10만불자 정토결사' 결의도

조계종의 양대 신도단체의 하나인 전국신도회(회장 선진규)가 종단의 공식 신도단체인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와의 통합조건을 처음으로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국신도회는 12일 서울 한국일보사 송현클럽에서 대의원회의를 열고 "중앙신도회와의 통합건은 통합특별기구 설치를 대전제로 하고 '전국신도회' 명칭이 고수되고 신도 자율권이 보장될 때 대의원대회의 승인으로 이룩된다"고 결의했다. 이날 대의원회의에서는 오는 30~31일 김해 봉화산 정토원에서 개최하는 '제1차 10만 불자 정토결사 전진대회' 추진을 위한 규약12조를 통과시키고, 2002년 월드컵 불교문화행사의 일환으로 한강변 연등대법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대의원회의는 또 전국신도회가 주최가 되어 봉화산 '호미든 관음성상 봉안법회'의 주최가 되기로 하고, 종단의 분규와 관련 "종권을 둘러싼 모든 소송과 투쟁, 폭력과 물리력 행사의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 등 '현종단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4개항을 결의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국립공원내 사찰 72% 오·폐수 계곡에 방류

환경부 자료…"정부 시설지원 절실"

국립공원내 3백여곳의 사찰 대부분이 오폐수등을 계곡에 무단방류하는 것으로 나타나 오수정화시설 설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13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방용석의원(국민회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라산과 경주국립공원을 제외한 18개 국립공원내에 위치한 사찰에서 하루평균 1천546톤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오폐수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는 50개 사찰에서 28%인 429톤만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수발생이 많은 이유에 대해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사찰을 관광하고 이용하는 이용객수가 1년 총 4백18만6천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월 이용객수가 1천명을 넘는 해인사 내장사등 국립공원지역내 대형사찰 32곳중 오수시설을 갖춘 곳은 10곳에 불과한 상태이며 가야산 오대산 소백산 변산반도 월악산 주왕산등 9개 국립공원은 오폐수를 모두 계곡에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용석의원은 "국립공원안에 위치한 모든사찰의 오수시설설치가 시급하다"며 "오수정화시설의 설치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산 1백23개 사찰중 32개 사찰만이 오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나머지 91개 사찰은 처리시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조계종은 9월15일 친환경적 사찰만들기 주제의 토론회를 열어 국립공원내 위치한 사찰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해 줄것을 요청한 바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대둔사 청신암 탱화 4점 도난

10일 새벽 3시께 전남 해남군 해남읍 대둔사 경내 암자 청신암에서 탱화 4점을 도난당한 것을 이 절 주지 경호스님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호스님에 따르면 이날 예불을 드리기 위해 청신암에 들어가보니 좌측 벽면에 나란히 걸려있던 각 세로 1m, 가로 60㎝크기의 탱화 4점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도난당한 탱화는 국보나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성보다. 경찰은 9일 밤 늦게까지 이들 탱화가 걸려있었다는 절 관계자들의 말에 따라 10일 새벽1시에서 3시사이에 범인이 부엌을 통해 안으로 침입, 탱화를 훔쳐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오종욱 기자

동국대 불교병원 '첫삽' 동국대학교 의과대학·한의과대학 부속 불교종합병원 착공식 및 축하공연이 14일 고양시 식사동 병원건립부지에서 녹원스님(동국학원 이사장) 탄성스님(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석주스님(칠보사 조실) 고산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운덕스님(천태종 총무원장) 현성스님(중앙승가대 총장)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치러졌다. 강지연 기자

불교캐릭터상품 개발

어린이포교연합회

한국불교어린이포교회(회장 법전스님)가 불교캐릭터 '뿌따(BBUDDA·사진)'를 개발, 캐릭터 마켓팅사업을 전개한다. 한국불교어린이포교회는 지난 3월부터 전문캐릭터개발업체인 삼우커뮤티케이션과 공동으로 개발에 착수, 동자승을 모델로한 메인 캐릭터인 뿌따와 뿌따의 부모 무무와 무라, 그리고 친구인 아미와 아라의 작업을 마쳤다. 현재 CI를 바탕으로 각종 불교용품을 비롯 신세대가 즐겨찾는 시계, 핸드폰줄, 스티커, 티셔츠, 마우스패드 등 문구와 팬시상품 25종을 개발했다.

이은자 기자

태고종 합동득도 수계산림

행자 209명 교육

태고종 제23기 합동득도수계산림이 11일 오후 3시 태고총림 선암사 금강계단에서의 입재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6일까지 4주간의 교육에 들어갔다. 이번 수계산림에는 남행자 166명 여행자 43명 등 총 209명의 행자가 참가했는데 이 숫자는 지난해의 2배로 높은 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11일 열린 입재식에서 인곡 태고종 총무원장은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수행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위로는 스스로의 보리를 증득하고 아래로는 뭇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라며 "행자여러분은 이 시간부터 사회를 제도하고 이끌어나갈 수행자라는 신념과 사명감을 가지고 수행정진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득도수계 참가 행자들은 4주동안 매일 새벽예불및 정근, 강의, 참선수행, 저녁예불 및 1천배 참회정진 등의 교육내용으로 수련을 쌓는다.

이경숙 기자

유마선원 토요수련회
불교수행의 정수를 알고 싶으십니까?
→ 여기 금강경 공관법이 있습니다.
· 수행지도 : 유마선원장 적연 이제열 법사 · 일시 :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 교 통 편 : 유마선원 전철 - 3호선 화정역 1번출구 덕양우체국 앞
버스 - 신촌 921(좌), 영등포82(좌), 서울역 907(좌)
· 문 의 : 0344-967-9122

뉴스 & 뉴스

백령도 심청각 준공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종교편향사건이 발생했던 백령도내 심청각이 21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 문을 연다. 인천시 옹진군과 가천문화재단은 이날 심청각 개관식과 함께 심청환생 동상제막식을 가질 예정이다. 개관식에는 국악인 성창순씨가 효녀 심청을 기리는 판소리 '인당수-연꽃환생'을 공연하며 시낭송과 심청 배뱅이굿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된다.

김재경 기자

자민련불자회 호국법회

자유민주연합불자회(회장 박철언)는 국군의 달을 맞아 26일 오후2시 중앙당 강당에서 호국대법회를 봉행한다. 3개월에 한번 여는 정기법회를 대신해 마련한 이날 법회에서는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이 법문하고, 변웅전 자민련 불자회 부회장이 발원문을 낭독한다. 박철언 회장은 "동티모르에 파견된 군장병들의 무사귀환과 불교계 안정을 기원하는 불자들의 간절한 염원을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동화사청년회 창립법회

조계종 제9교구본사 팔공산 동화사(주지 성덕)는 10일 동화사 봉서루에서 동화사창건이후 처음으로 동화사청년회를 결성했다. 동화사 청년회는 이날 초대회장에 김태홍씨(32)를, 지도법사에 동화사교무국장 해월스님을 각각 추대하고 산하에 교리연구신행·편집홍보·정보통신·문화유적답사·전통놀이문화보급·팔공산환경지킴이등 6개의 실천모임을 구성키로 했다.

이윤호 기자

대광맹인불자회 8돌

대구 대광맹인불자회(회장 박석규)는 8일 자체법당인 대광사에서 창립 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화사교무국장 해월스님,대승사주지 만권스님,최동원 제9교구신도회장, 생명나눔실천회 심업대구지부장 등 사부대중1백여명이 참석했다.

불자회는 이날 만권스님과 이재달前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한 것을 비롯 모임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대상으로 표창패와 감사패등을 수여했다.

이윤호 기자

연화복지학원 하루찻집

광림사 연화복지학원(원장 해성)은 20일과 24일 지체장애인 세상 나들이와 청각장애인 운전교습기금 마련 하루찻집 행사를 연다. 지체장애인들에게 성지순례를 통해 불교를 알게 해주기 위한 목적의 세상나들이 행사는 20일 용주사에서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다. 하루찻집은 청각장애인 무료운전교습용 차량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로 24일 송파구 프로젝 커피숍에서 열린다.

한명우 기자

법당낙성 3주년 기념식 및 종단 등록기념법회 (및 나한전 봉불식)

모시는 글

귀의 삼보하옵고

본사 회주스님이신 **혜인 큰스님**께서 이땅에 부처님의 성전을 건립코자 원력을 세우시고 불사를 시작한지 10여년이 넘는 동안 국내외의 신심깊은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기도원력에 힘입어 지난 96년 9월 동양 최대의 법당낙성 회향법회를 가진 뒤 만 3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큰스님께서는 불자 여러분의 온갖 정성으로 이룩한 성전을 종단에 헌납코자 98년 5월경 조계종단에 등록신청을 출원하였으나 종단사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외적 요인 등으로 인해 1년여가 넘도록 종단 등록을 못하다가 종단사태가 정리된 최근에야 종단등록 신청이 수리되어 지난 5월 종단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에 **법당낙성 3주년 기념식 및 나한전 봉불식과 어린이를 위한 공연행사**를 봉행 하오니 전국의 불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동참하시어 제주 약천사에서 성불인연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나무 마하 반야바라밀

불기 2543년 10월 일

일정

10월 22일 오후 6시

6:00 저녁예불
7~11시 법문
①철웅 큰스님
②혜국 큰스님
보살계수계: 혜인큰스님
11시 영가천도재
〈오전〉 4:00 새벽예불
6:00 아침공양
8~9시 나한전 봉불식

· 낙성 3주년 기념식 ·
10월 23일 오전 9시

기타공연

· 동국실내 국악단 연주
· 조경자씨 판소리(심청가 눈뜨는 대목)
· 김하정씨 한량무, 승무
· 약천사 어린이 사물놀이 공연
· 약천사 탐라다도회 육법공양
· 박경숙씨 "신칼대신 무"

불사 동참안내

· 영가보살계 1위 - 오천원
· 보살계수계 - 일만원
· 영가등접수 - 일만원

송금방법

31-01-058513(제주은행)
예금주 : 약천사

■협력업체 : 협력업체를 이용하시면 값싸고 편하게 제주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 서울 선재여행사 02-582-6647~8 · 반야여행사 02-730-0020
- 부산 우진항공여행사 051-635-6333
- 대구 무궁화관광 053-423-5501~5
- 제주 대자연교통(교통편 문의처) 080-996-9999, 011-699-3348

대한불교 조계종 약천사 회주 慧印 주지 性空 합장 · 전화 064)738-5000 · 팩스 738-5022

댄스그룹 "신화"가 약천사에 옵니다.

어린이를 위한 초청공연

10월 24일 댄스그룹 '신화'

10시 30분 ▸공연
무료
▸신화 소장품 선물 추첨
▸선물추첨(CD, TAPE) 100명
▸기념촬영(추첨)
▸참석자 브로마이드 증정(30,000명)

10월 31일 개그맨 강호동
11월 7일 개그맨 김경식
11월 14일 개그맨 박수림

★ 시간 - 매주 일요일 10시 30분